



전라지역

느티나무

돌무더기 임청대 옆에 자라는 느티나무

✳	지정번호	순천-15-3-13-1	✳	전남 순천시 임청대길 7
	지정년도	1974		35° 57' 08.98" N
	관리기관	순천		127° 28' 44.70" E
	수령	510년		
	수고	17m		
	흉고둘레	4.8m		

옥천서원의 인근 개울가에 접하여 있는 보호수(순천-15-3-13-1) 느티나무는 주택 및 길가 옆의 임청정원에 자라고 있다. 임청정원은 옥천 개울가와 정자 및 동그랗게 돌을 쌓아 놓은 곳을 중심으로 꾸민 청정구역이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48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15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크게 2~3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가지 줄기를 내어 펼치고 있다. 위쪽 가지 줄기는 잘라졌으므로 새로운 가지를 내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 줄기 밑동은 한쪽 부분에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개울가 옆에 자라는 느티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임청대臨淸臺’와 관련이 있다. 느티나무는 ‘임청대기’와 ‘강남악부’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이다. 매개가 1502년에 쓴 ‘임청대기문’은 순천부 서쪽에 시내가 있는데 물이

매우 맑고 바위가 매우 기이하며, 나무(현재의 느티나무로 추정)가 우거져서 해를 가리고 있다고 하였다. 강남악부는 1784년에 조현범이 순천 지역의 인물, 풍속, 신기한 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느티나무는 임청대 옆에 서 있다. 임청대는 1498년 무오사화로 인하여 순천 지역으로 유배된 조위(1454~1503)와 김광필(1454~1504)이 동그랗게 돌을 쌓아 만들어 교류하던 곳이다. 조위가 ‘항상 마음을 깨끗이 가지라’라는 뜻으로 임청대라 이름 지었다. 또한 1565년 순천부사로 부임한 이정(1512~1571)이 그들의 덕을 기리기 위해 임청대비를 세우고 옥천서원도 건립하였다. 임청대의 앞면 글씨는 퇴계 이황(1501~1570)이 썼다. 느티나무는 20여 년 전까지도 마을의 당산제를 지냈던 당산나무(당산목)였으며, 지금도 매년 마을 공동으로 간단하게나마 동례를 행하는 관례가 있다.